

방재관리연구센터 소개



이영근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yklee@kodipa.or.kr

들어가며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Disaster Management Research Center)의 모태는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가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직된 ‘연구기술개발실’이 그 출발점이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제5항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으로 방재 및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적 규모의 재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한국방재협회가 수행하던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2014년 김진영 이사장을 필두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가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개발실에서 수행하던 과제를 점진적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016년 10월 현재 총 6개의 국가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정책용역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주요 연구사업 분야

본 센터는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확대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전략 및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방재분야 정책개발 지원,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재난안전방재기술 실용화 및 보급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재난안전 방재분야 정책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2. 재난안전 방재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관리
3. 정부, 공공단체, 연구소, 산업체 및 기타 수탁된 연구 및 기술용역
4. 재난안전 방재 관련 정책건의 및 조사연구
5. 재난안전 방재기술 실용화 및 보급 촉진
6. 방재기술 평가업무 위탁대행 사업
7. 재난안전방재분야 기술보급을 위한 출판 및 학술발표회 등 개최
8.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 중 한국방재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난 및 재해 관련 워크숍 및 심포지엄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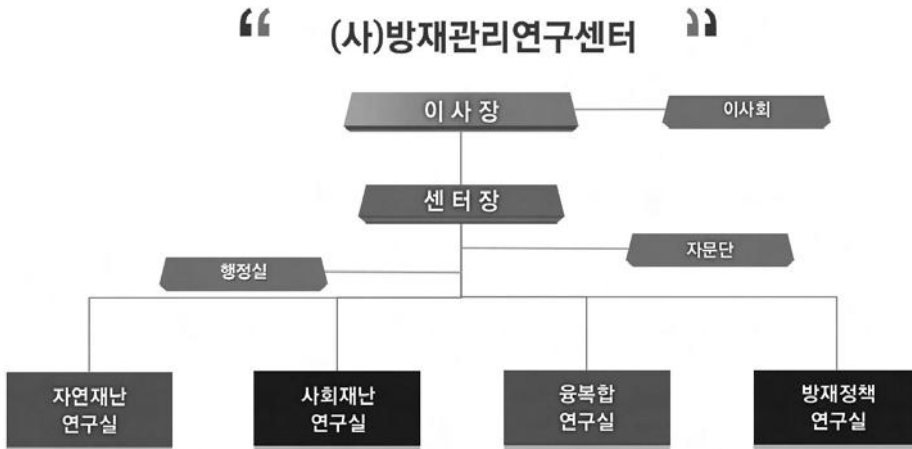
한국수자원학회 기획세션 참가



이탈리아 지진 현장 답사

조직 및 구성

방재관리연구센터는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조직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사장을 핵심으로 센터장이 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 센터는 자연재난연구실, 사회재난연구실, 융복합연구실, 그리고 방재정책연구실의 4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구실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재관리연구센터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연구실

자연재난연구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연구하고, 구조물적 및 비구조적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고,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이슈의 대두로 인한 재난규모의 거대화 및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난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새로운 자연재해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중요한 연구테마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 사회재난연구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 외의 재난으로 그 종류가 많고 발생원인이 복잡하여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또한 자연재난이 동기가 되어 사회재난으로 발전하는 이른바 Natech과 같은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재난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복잡·다양한 사회재난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수립되었거나 혹은 수립중에 있는 각종 사회재난 대책을 포함하여, 특수재난이나 신종재난 등 재난의 형태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연구범위로 하여 연구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3) 융복합연구실

앞으로의 미래세대는 이른바 융복합의 시대라 불릴 수 있다. 융합과 통섭이 강조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현상이 포함된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리기 어렵다. 따라서 융복합연구실에서는 극대화된 IT기술을 바탕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정보매체로 활용함으로써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재역량강화를 추구하고자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역동하는 방재 융복합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방재정책연구실

정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행동방침으로 이는 법률, 사업, 계획, 지침 및 결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방재정책연구실에서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이른바 방재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결정수단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구축된 수많은 법률과 제도, 조직이 유기적·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연구활동을 수행중에 있다.

미래재난에의 대응

방재관리연구센터는 현재 국민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의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중에 있다. 재난 및 안전은 어느 한 부처 혹은 기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재관리연구센터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본 센터의 노력으로 한사람의 인명, 한푼의 재화를 기킬 수 있다면 기꺼이 불철주야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방재강국으로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